



서경대신문

1955년 5월 23일 창간
발행인·최영철 / 주간·방미영
편집장·이예은 / 인쇄인·발해기획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02713)
전화·940-7257 / www.skpress.org

사회 >> 3면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논란에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기획 >> 6면

서경대 2023 대동제 UP TO YOU

현장르포 >> 8면

43주년 맞은 5.18 민주화운동

제570호

2023년 6월 28일(수)

학우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찼던 2023 이공체전



이공대의 대표적인 행사 '이공체전'이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약 5일간 진행됐다.

참가 대상은 이공대 재학생이다. 체전 종목으로 남자 풋살▲ 족구▲ 농구, 여자 족배구▲ 발야구▲ 피구

그리고 혼성 종목에는 이어달리기와 줄다리기 포함해 총 8종목으로 구성됐다. 학우들의 뜨거운 열정과 땀으로 물들었던 2023 이공체전. 그 열기 속에서 서경대 신문사가 들어가 봤다. 경기 진행 방식은 모두 토너먼트 형식이다. 종합 우승 학과엔 상품으로 상금을 부여했는데 1등에겐 30만원, 2등에겐 20만원, 3등에겐 10만원이 주어졌다. 경기 결과 최종 우승 학과는 소프트웨어학과, 2등은 나노 화학생명공학과, 3등은 전자·컴퓨터공학과가 차지했다. 비록 어렵게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학과 또한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며 열정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공체전을 주최하고 관리한 바다

무적이공대 정 학생회장 유봉환(컴공 17) 학우는 "이공체전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종목별 전문 심판이 아니다 보니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진 않았지, 체전 진행 도중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지 걱정을 많이 했다. 종목별 세칙을 꼼꼼히 정리하고 각 학과 회장단이 열심히 준비한 끝에 큰 사고 없이 이공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이공대학학생회분들의 노력과 선수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학우분들의 응원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덧붙였다. 이번 2023 이공체전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장 최지호(소웨 21) 학우는 "이

공체전 우승은 서경대에 입학한 이후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이번 최종 우승 요인으로 마지막 날 이어달리기 역전승이 큰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수로서 참가한 학우들과 응원하러 와준 학우들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다. 이번 우승은 우리 과의 자부심과 학우들 간의 유대감을 높여주고 많은 의미를 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다시 한번 함께한 모든 학우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2등을 차지한 나노 화학생명공학과 학생회장 김민서(나노 18) 학우는 "힘들었던 중간고사 기간이 끝난 직후 체전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되었고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행사가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며 "작년에 아쉽게 종합 2등을 하게 되어 올해에는 반드시 우승하고자 학우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주었는데 비록 아쉽게 종합 2등을 하였지만 소행과 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 이 자리를 빌려 종목에 참여한 학우들뿐만 아니라 매 경기 응원하러 와주는 모든 학우, 그리고 체전 행사 진행에 힘써준 바다 무적이공대 학생회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3등을 차지한 전자·컴퓨터공학과 학생회장 권노희(컴공 19) 학우는 "전자·컴퓨터공학과로 통합되고 처음 맞는 이공체전이기에 때문에 사

실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다. 열심히 뛰는 선수들과 매 경기 열렬히 응원하는 학우들이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종합우승 3위를 거머쥐게 된 것 같다. 전자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가 합쳐져 진행된 첫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서 자랑스럽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모두가 하나 되어 즐겼던 2023 이공체전. 학우들의 멋진 도전정신과 열정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개최될 다양한 학과별 행사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서경대 영화영상학과 학우,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여하는 성과 거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 간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렸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동시대 영화 예술의 대안적 흐름과 독립, 예술영화의 최전선에 놓인 작품들을 소개한다. 올해 영화제 상영작은 총 247편으로 그 중 해외 작품이 125편이며 42개국에 참여했다. 서경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학우와 동문 또한 참가해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상영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한 재학생 1학년 이재호, 4학년 이금주 학우를 인터뷰했다.

할로 참여했습니다. 저희 영화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상 속의 영화, 영화 속 일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파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이번 작품에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A. 감독님의 작업 방식이 굉장히 유연하고 열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본을 보고 연기를 준비해 가도,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 대사와 분위기를 바꾸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고, 촬영하는 그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 앞으로의 작품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배우 이금주라고 합니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신동민 감독의 <당신으로부터> 승주 역

A. 프로젝트 일곱(1X)이라는 청년예술팀과도 함께 작업하고 있고, 일곱팀과 <파도에 부서지더라도>라는 창작극을 잘 올렸습니다. 이번 졸업작품에서 연기와 연출을 함께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재호 학우 (영화영상학과 23학번)

Q. 자기소개와 간단한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영화영상학과 25기 이재호입니다. <호루라기>는 제가 열여덟 살 적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든 첫 연출작입니다. 너무나 다른 두 고등학생이 같은 호루라기를 통해 소통하는 관계를 다룬 성장영화입니다.

Q. 전주국제영화제에 본인의 작품이 상영된 소감은 어떤가요?

A.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상영관에 앉아 제 영화가 나오는 순간 땀이 비처럼 쏟아지고 긴장되었어요. 관객과의 대화 경험도 몇 번 있어 마음 편히 먹자 생각했는데, 마이크에 붙은 전주국제영화제 로고를 보니 그 위압감이 다르더라고요.



A. 당일은 정말 행복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Q. 작품에 담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간관계와 친구 관계가 버튼 하나로 좌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가진 의미가 가벼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 휴대전화라는 요소를 배제해

서 호루라기로 소통하는 인물을 통해 대화와 소통에 초점을 맞춘 영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Q. 이번 작품에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A. 첫 연출이다 보니 욕심이 많아서 어느 한 부분만 신경을 썼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시엔 모든 걸 완벽하게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니다. 돌이켜보면 '누구에게 보여주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영화를 만들자.' 이게 제 유일한 목표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행복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Q. 타 작품과 비교했을 때 본인 작품만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다시는 없을 모든 스텝과 배우들과의 완벽한 합이 영화에 크게 기

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같은 반 친구들과 영화를 만들고, 촬영해 현장의 모든 친구가 열여덟 동갑내기였습니다. 열여덟 임시를 앞둔 동갑내기 친구들의 영화를 향한 '열정'이 차별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느꼈던 호루라기 현장은 이 영화에 진심이 아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Q. 앞으로의 작품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작년에 임시 준비하며 썼던 단편 시나리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판타지 히어로 영화인데 언젠가 멋지게 만들어 이 기사를 읽고 계신 분들께 꼭 보여드릴 기회가 생겼으면 합니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409@naver.com)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신문 창간 68주년을 축하합니다.



서경대 사회봉사단, 따사로운 봄별 담은 '2023 봄 김장 나눔행사' 진행해

지난 5월 13일, 서경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는 김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3 봄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봄 김장 나눔행사는 지역 내 식생활 지원 대상자 및 기타 취약계층 가정 등 총 8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직접 담근 김치는 거동 불편 당사자 약 20가정에 배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경대 사회봉사단 및 교직원과 사랑봉사회가 함께했다. 서경대 사회봉사단에서는 기존 단원들과 새로 모집한 단원까지 총 12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행사를 위해 서경대학교는 김음종합사회복지관에 300만원을 후원했다. 본격적인 김장에 앞서 사회공

현활동 업무 협약식도 간소히 치렀다. 협약식에서는 지역 소외계층 이웃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1200만원이 김음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됐다. 김음종합사회복지관 장민균 관장은 "서경대와 함께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을 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지난 10년을 뛰어넘는 인연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치를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더 값진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9시 30분경 시작할 김장은 10시 50분경 비교적 빨리 김치 버무리기를 완료했다. 김치

를 포장한 뒤 행사장 정리와 청소역시 발 빠르게 끝마쳤다. 이후 직접 김장한 김치와 함께 풍성한 점심이 제공됐다.

사회봉사단원들은 겨울에 담긴 김치 김치가 동이 날 때쯤 봄철 떨어진 입맛을 돋워줄 햇김치를 정성스럽게 담았다. 내리쬐는 햇살에 구슬땀을 흘리며 7kg의 김장 김치를 손에 들고 날랐다. 김장과 김치 배달까지 행사는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가량 이르게 마무리됐다. 사랑봉사회와 지원과 지난 김장 행사로 제법 김장이 익숙해진 기존 사회봉사단원들이 새 단원에게 세심히 알려준 덕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봉사 이후 만족도 조사 결과, 서경대 사회봉사단원들은 사전 안내, 진행 과정 등 봉사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봄 김장 나눔행사로 이제 막 포문을 연 서경대 사회봉사지원센터와 사회봉사단은 봉사 활동을 부단히 이어 나갈 전망이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인문사과대 모두가 함께한 인싸체전

지난 5월 16일부터 3일간 진행되었던 인문사회과대학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온유' 인문과대학과 '오늘' 사회과학대가 함께한 '인싸체전'으로 종목은 남자 경기에 풋살 ▲ 족구 ▲ 농구, 여자 경기에 족배구 ▲ 발야구 ▲ 피구 그리고 혼성 종목에 계주와 줄다리기 포함해 총 8종목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깜짝 보물찾기 이벤트를 준비하여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했다.

인싸체전을 주최한 온유 인문대 정 학생회장 서재완(불어 19) 학우는 "체전 진행에 앞서 준비한 것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매끄럽게 진행할 수는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결과적으로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였지만, 모든 스태프 및 인문사과대 단원들의 노력과 학우

들의 응원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표했다. 또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참여율 저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많은 회의 끝에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홍보와 같은 여러 카드뉴스를 함께 진행하여 한층 발전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과대 정 학생회장 박정훈(군사 20) 학우는 "코로나19가 조금씩 완화됨에 따라 작년에 비해 학교에 학우들이 많다 보니 더욱 활기찬 모습에 굉장히 설레었다"며 "학우분들께서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에 인문대와 사과대 학생회 임원들도 뜻깊고 소중한 추억이 된 거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목적이 '재밌게 즐기자!' 인 만큼 선수들의 인전

을 가장 우선시하였다"며 "부상이 많이 발생한 첫날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원인이 심판 및 스태프들의 부주의라고 판단되어 안전 관리 인원을 추가 및 전문 지식을 갖춘 분들을 섭외함으로써 사고를 줄이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경기 결과, 6종목을 우승한 군사학과가 종합우승을 가져갔으며, 준우승으로는 경영학과와 글로벌비즈니스학과가 차지했다.

최종 우승 학과인 군사학과와 정 학생회장 이민준(군사 20) 학우는 "22년도 이어서 이번 23년도 인싸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우승을 할 수 있게 각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린 우리 선수들과 열심히 응원해준 모든 군사학과 학생들에게 고맙다"며 이번 체전을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신 인문사

과대 정웅석 학생님과 인문대, 사과대 회장단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또한 "어차피 우승은 군사학과라는 타이틀이 주어진 만큼 부담감도 컸지만, 저희 군사학과 학생들이 좋은 협동력을 보여주어 여러 종목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군사학과가 종합우승을 하여 어차피 우승은 군사학과라는 타이틀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멋진 포부를 내비쳤다.

이번 체전은 모두가 각 학과의 소속감을 느끼며 학우들 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던 행사였다. 열정적인 참여와 응원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된 체육대회에 이어 앞으로도 개최될 많은 행사 또한 성공적으로 이어질 기대한다.

한채린 수습기자
(hanchaerin@skuniv.ac.kr)

서경대학교, LMS를 통한 '생명지킴이교육' 실시

서경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교내 생명존중문화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콘텐츠 영상은 서경대학교 LMS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보기'와 '듣기' 그리고 '말하기' 순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보기'에서는 자살을 암

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들을 중심으로 다룬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로 사망한 사망자들의 94%가 사전에 경고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 자살에 이르는 과정으로는 크게 생각, 계획, 시도로 이어지는데 생각과 계획에 머물러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빨리 발견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두 번째 '듣기'에서는 앞서 '보기'에서 언급한 경고신호들에 대해서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를 적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물을 땐, 자살 언급을 굳이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어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 또한 대화의 내용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들을 수 있는 상황'에 판단하지 않

는 태도'가 충족되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 '말하기'에서는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와주기 위한 말을 배운다. 자살 위험성을 확인할 때에는 방법과 시간 장소를 구분해야 하며 수단의 여부와 구체성을 따져야 한다. 또한 이전에 자살시도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앞선 '보기'와 '듣기' 그리고 '말하기'의 더욱 자세한 정보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다. 학우들은 해당 교육을 통해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가득 담아 가길 바란다.

윤정현 수습기자
(tony0435@naver.com)

알림장	
6월 15일 ~ 6월 21일	1학기 기말고사
6월 22일	하계방학
6월 23일 ~ 7월 13일	하계계절학기
6월 29일 ~ 7월 7일	1학기 성적열람 및 정정

한 눈에 보는 이슈

<p>정치</p> <p>윤석열 정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두둔 논란.. 시민들 '불안'</p>	<p>경제</p> <p>"편하고 좋았는데.."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논란에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p>	<p>사회</p> <p>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 인가</p>	<p>문화</p> <p>그가 훼손하고자 한 것은 '바나나'인가, '작가의 의도'인가</p>	<p>스포츠</p> <p>중공안,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구속수사 전환에.. 외교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바란다"</p>	<p>연예</p> <p>팝스타 브루노 마스 내한.. '연예인 특혜' 논란에 잡음 지속</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윤석열 정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두둔 논란.. 시민들 '불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국내 방류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자. 원전 오염수는 동일본 대지진 다음 날인 2011년 3월 12일 발전소가 세 차례 폭발함에 따라 발생했다.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말이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처리하면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가 된다"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것일까?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방류를 사실상 합의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아이보시 대사와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과의 협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성실한 설명을 하고 싶다"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 동맹'이라 비판했다. 지난 2021년 8월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며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 발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



▲ 출처 : 오마이뉴스

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데 온갖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2박 3일 일본 원정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시민 인터뷰]

- 이지연 (28세) / 이기람 (31세)

Q. 윤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

전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이지연). 솔직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인접해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2박 3일 일본 원정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A(이기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명명됐으면 방류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원전소가 폭발하고 약 12년 정도가 지났으니 그만큼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했을 테니까요. 우선 서로가 잘맞았을 따지기 전에 객관적인 사실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Q. 원전 오염수 방류 전과 후 무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 인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이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5월 4일 부분파업을 시행했다. 논란의 간호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둘째, 간호 종합 계획 5년마다 수립/3년마다 실태조사. 셋째,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넷째,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다섯째,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 출처 : 연합뉴스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OECD 가입 국가 평균 8.9명이지만 우리나라는 3.8명으로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간호사 대부분이 30대 전후로 사직하기 때문에 숙련간호사가 부족해지고 업무가 가중된다. 따라서 간호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환자의 안전마저 위협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현재 한국은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조산사가 모두 의료법 하나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각 분야에 세분화된 법이 없으므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게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이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많은 정쟁이 존재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사만 이득이 되는 법이라 반발하며 타 직역에 대한 역차별이라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이 궁극적으로 국민 간호/돌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간호사들은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하므로 단독 개원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5월 9일,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얻어낸 결실"이라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 이뤄진 보건 복지의료연대 또한 4월 27일 간호법 제정의 국

회 통과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의 힘 정부는 간호사법을 '간호사 이기주의법'이라 칭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계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며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 간호사에게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며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반복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정부는 의료계 전체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시민 인터뷰]

- 김나래 (28세) / 김혁진 (30세)

Q. 간호법 제정 통과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A(김나래). 반대합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결국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

호법이 제정된다면 그동안의 의료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김혁진). 찬성합니다.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했고, 이제는 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간호사들이 떠나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호법은 결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Q.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김나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 종사자들 전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논란이 많은 법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A(김혁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심했을 당시, 인원이 부족해 열악한 환경에서 과도한 업무를 처리했던 간호사들을 위한 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선된 이후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을 농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130@skuniv.ac.kr)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한 30대 구속...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여파

지난 5월 26일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이모씨가 최근 구속됐다. 이씨는 착륙 직전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km 속도로 운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문을 열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상구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당시 탑승객 중 9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탑승객들의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 후 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 당시 "최근 실

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아시아나는 이 사건의 여파로 사 고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좌석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문제의 승객이 앉았던 31A 좌석을 비롯해 비상구와 가까이 위치한 26A 좌석도 판매 중단되었다. 이 조치는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이 외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본래 비상구 앞자리 좌석은 다른 일반석보다 넓어 항공사들이 웃돈을 얹어 판매해온 자리이다.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르면 '승객의 탈출에 필요한 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되면 비상구 좌석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항공사가 매출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황호원 한국항공보안학회장은 "승무원들을 도와 유사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승객들에 대한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사전 교육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JTBC뉴스] 항공기 탑승 시 안전은 그 무엇보다

다 중요하다. 본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들은 비상문 근처 좌석 승객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탑승객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 인터뷰]

- 유상훈 (51세)

Q.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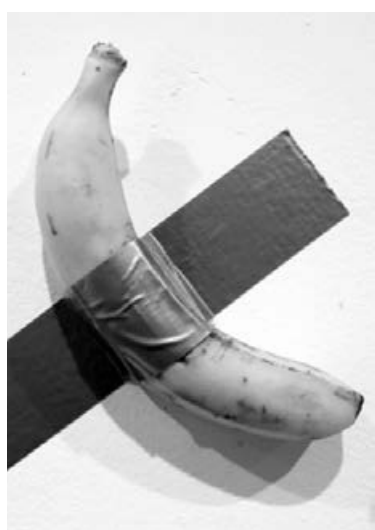
실직 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 조절을 스스로 못 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비상사가 아님에도 그렇게 쉽게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직접 몸으로 비상구를 막는 것을 보고, 기내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Q. 본 사건으로 비상구 좌석이 판매 중단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판매 중단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문을 연 사람에 대한 사후 처벌이 강하게 내려져야 할 것이고, 기내에서 출입문을 함부로 개방하지 말라는 사전 공지와 같은 예방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지우 수습기자 (milkyway_85@naver.com)

그가 훼손하고자 한 것은 '바나나' 인가, '작가의 의도' 인가



▲ 출처 : 뉴시스

지난 4월 27일, 한 남자가 리움미술관에 전시 중이었던 작품을 먹었다. 그가 먹은 것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전시품 중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에 쓰인 바나나로, 벽면에 은색 덕트 테이프를 바나나를 붙여 놓은 개념미술 작품이다. 이 사건은 서울대 미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밝힌 본인이 직접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알려지게 됐다.

리움미술관 측은 그 남성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고, 새 바나나를 다시 붙여 놓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태를 인지한 카텔란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전했다.

이 작품은 바나나 자체가 아니라 작가가 그것을 붙이기로 한 아이디어 자체가 작품이기 때문이다. 바나나 자체가 작품의 본질이 아니기에, 카텔란의 이 바나나는 2~3일에 한 번씩 신선한 것으로 교체하고 있다. 그럼에도 작품 '코미디언'은 미술 시장의 현실을 풍자하는 의도를 담고 있어 그 가치가 12만 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아이디어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은 작품은 개념미술로 분류된다.

바나나가 일정한 주기로 교체되고 있다고는 해도 엄연히 전시품을 훼손한 것이기에 논란이 있었지만, 의도가 눈에 훤히 보이는 그의 태도로 인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미 2019년 안트바젤 마이애미 첫 전시 당시 '코미디언'의 바나나를 미국의 아티스트 데이비드 다투나가 떼어내 먹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다투나는 "배가 고파서 먹었다"며 "바나나를 먹은 이 행위를 '배고픈 아티스트'라고 이름을 붙이겠다"고 말해 작품이 더욱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이번 서울대생 역시 "배가 고파서 먹었다"며 다투나의 행위를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 게다가 미술관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스스로 언론사에 제보한 전말이 드러난 후, 그의 행동이 '개념미술'에 대한 교착로 인한 행위가 아닌 단

순히 이목을 끌기 위한 일이었음을 시사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현대 미술의 속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남성용 소변기를 미술관에 전시한 마르셀 뒤샹의 작품 '샘'은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기에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미술은 작품의 결과나 물질적인 성질보다 작가의 아이디어와 제작 과정이 중시된다. 따라서 상품으로서의 작품을 거부하고 소유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치가 평가되던 기존 예술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 물질적인 작품 자체를 구매했다고 해도 그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가졌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술에 대한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므로, 최종철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예술 작품에 대한 미학적 판단은 가격이나 유명도와 꼭 동일한 것은 아닌 별도의 영역"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작품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고 미학적 통찰을 얻는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기준을 세워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은 기자 (20eun00@naver.com)



▲ 출처 : 연합뉴스

창간 68주년을 축하하며

1955년 5월 23일 창간한 <서경대신문>이 68주년을 맞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대학신문의 사명을 다하며 오늘에 이른 <서경대신문>에 대해 서경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경대신문>은 우리 대학의 역사 속에서 구성원의 깨어있는 지성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대학신문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전통과 권위 있는 언론매체로 성장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업과 연구 및 청문단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좋은 신문

만들기에 헌신하고 계시는 주간 교수님과 편집장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1987년 지금의 정릉캠퍼스에 터전을 잡은 우리 서경대학교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각종 촬영장소 섭외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아름다우면서도 실속 있는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메카인 대학로에 지하 5층, 지상 5층의 공연예술센터를 건축하는 등 안팎으로 성장을 꾀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실용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한다는 「서경비전 2025」를 수립하여 내실을

다져 왔으며, 4차산업 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대학과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스포츠테크놀로지학과를 신설하는 등 대학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내 곳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글로벌 리더 양성기관으로서의 면모도 실감할 것입니다.

이처럼 눈부신 학교 발전에 그동안 <서경대신문>이 일익을 담당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변화된 언론 환경에 부응해 종이신문을 탈피하고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경대학교 모든 구성원과 함께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하여 '실용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교육 슬로건에 부합하는 우리 대학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창달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학교에서도 68주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서경대신문>이 더욱 발전하여 시대의 관심을 담아 대학신문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간 68주년을 축하합니다.

서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김 범 준

제51대 위로 총학생회 정학생회장

김희범



안녕하십니까 제51대 위로총학생회 정학생회장 문화콘텐츠학과 17학번 김희범입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19가 완화된 후 따라 교내 전반적인 행사들이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내의 행사들 및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점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접하지 못하는 서경대학교 학우들에게 공유해주시는 신문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학 신문은 교내 학우분들이 정보를 전달받으며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의 의견을 통해 저희 총학생회를 포함한 이화 모든 학생회가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의 방향성과 학우분들의 바램을 대학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시는 신문사 인원분들의 변하지 않고 중립적인 모습, 객관적인 사실만을 학우분들께 전달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 또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경대학교의 밝은 미래와 발전에 항상 신문사의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신문사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51대 위로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제51대 위로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물류시스템공학과 18학번 박정현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6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건히 대학 언론을 지켜온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어려웠던 시간을 이겨내고 활발한 대면 활동을 재개하는 해가 됐습니다. 다시금 캠퍼스에는 학우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소란스러움이 돌아왔습니다. 대면으로의 전환과 함께 활발한 취재를 이어가며, 학우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양질의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문사 기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경대 신문사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확하며 빠르게 학교 소식을 전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덕에, 저희 위로 총학생회가 더 나은 학생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공정한 대학 언론이란 무엇인지 고민하여 진정한 의미의 언론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중립적으로 서경대 신문에 기사를 실어주시는 신문사 정기자 및 수습 기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살아있는 언론, 공정한 언론, 깨어있는 언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진취적인 대학 언론 문화를 선도하는 신문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3대 운유 인문대 정학생회장

서재완



안녕하십니까, 제33대 운유인문대 정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19학번 서재완입니다. 먼저 신문사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상시 학교 그리고 외부에 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문사 신문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서경대 신문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전달하는데 있어 많은 기자님들의 노고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발로 뛰는 취재를 보았고, 신문사분들의 흘리는 땀을 여러 곳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당연히 쉬운 일은 없으며 일고자 하는 데 있어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의 노력 덕분에 많은 학우분들이 더 쉽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그리고 사회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행사들과 이슈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주신 신문사분들의 노고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문대, 예술대, 이공대, 사과대, 자치기구 등 학교 행사의 일정만 봐도 엄청난 양을 기자분들의 노력 덕분에 각 단대 및 자치기구들의 행사가 더 아름답게 여러 학우분들께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신문사에게 감사하며 다시 한번 더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5대 오늘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늘 함께하는 우리 제25대 오늘 사회과학대 정 학생회장을 맡은 군사학과 20학번 박정훈입니다.

먼저 학내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며 서경대 학우분들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해 주는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68번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사를 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신문사는 학내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경대 학우분들은 보다 더 폭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개강을 맞이하는 개강호와 종강을 앞둔 시점에서의 종강호를 통해 학교생활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서경대 신문을 보며 다채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로 뛰는 신문사분들의 열정 가득한 취재와 보도로 학우분들과의 소통의 장을 형성해 주시며 매번 신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우들의 지적인 지평을 넓혀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통해 신문사가 보다 특정한 학생 자치의 대학언론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학교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내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우리 학교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32대 바다무적 이공대 정학생회장

유봉환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32대 바다무적이공대 정학생회장 컴퓨터공학과 17학번 유봉환입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68년간 교내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신문사의 노고를 지켜보면서 같은 학생단체의 일원으로써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서경대학교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공대학 학생회장으로서 많은 변화의 현장에 저도 함께하였는데 그 현장에서 신문사 기자들이 발로 뛰어 취재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이공체전'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신문사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러 와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학우들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취재하고 사진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신문사의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학우들이 저희 이공대 학생회가 진행하는 행사를 알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현재의 모습을 잃지 않고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열정 넘치는 대학 신문사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5대 통합드림 예술대 정학생회장

두기상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25대 통합 드림예술대 정학생회장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18학번 두기상입니다. 우선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년도 코로나19가 완화된 후 늘어나는 행사들과 많은 변화로 인해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신문사 편집장님, 부편집장님, 신문사 기자님들께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담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마다 찰나의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 신문사의 모습이 항상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으로 남을 순간을 담은, 누군가에게는 경험하지 못했던 순간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을 기사로 만들어 발행해 주시는 신문사 덕분에 서경대학교 학우분들이 각자의 학교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교내외의 다양한 소식과 상황들에 대해 신속하게 취재하여 학교와 학생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신문사가 있기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서경대학교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사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교 소식과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통합 예술대학 정학생회장으로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서경대학교 학생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신문사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9대 든든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종휴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 39대 든든 동아리연합회 회장 컴퓨터공학과 21학번 김종휴입니다. 우선 같은 중앙 운영위원회 자치 기구의 일원으로서 신문사에서 여러 이슈를 취재하고 기사화하는 기자분들의 노고를 압니다. 제가 신입생이었던 시기에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때여서 학교에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온라인에서만 학교를 접할 수 있었고, 그때 가장 많이 학교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매체가 서경대학교 신문사였던 기억이 납니다.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와 학우분들의 다양한 활동과 기획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경대학교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각종 행사에서 늘 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는 신문사 부원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맞이하여 축사를 쓰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대표 문구 그대로 '발로 뛰어' 취재하고 '지성'이라는 단어가 걸맞게 서경대학교 학우분들께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합니다. 신문사에서 발행한 기사들을 보면서 새로운 주제나 서경대학교의 각종 이슈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학교 내에서의 몰랐던 부분들과 정보들을 얻게되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4대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경



안녕하십니까, 제34대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20학번 김민경입니다.

우선,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68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교내 신문을 통해 본교의 소식과 학우 분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편집장님, 부편집장님 그리고 신문사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학신문은 교내외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학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는 저희의 학교생활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신문을 통해 교내 소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다루기도 합니다. 이는 쉽게 접하기 힘들고 무지했던 분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경대 신문사가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어 학교 운영에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다면 더욱더 발전하는 서경대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잘 가꿔 오셨던 신문사를 꾸준히 변창시키고 앞으로도 학우분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서경대 신문사의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74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제 74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군사학과 20학번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문사의 68주년 창간을 축하하며, 570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소중한 순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 학우들을 위해 힘써 주시는 편집장님, 부편집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기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내의 다양한 행사 및 축제, 신입생 문화제와 여러 정보를 다루어 주신 기사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는 신문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며 서경대 학우들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2023년도부터 코로나 완화가 되며 다시 학교에 많은 학우분들께서 학교로 수업을 들으러 오게 되었으며, 신문사의 편집장님 부편집장님과 그리고 많은 기자분들이 서경대 학우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입생 문화제에서 학생분들에게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진 촬영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문사분들의 노력은 저희에게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덧 23년도 1학기의 종강을 달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여러 정보를 서경대 학우들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학교 있을 여러 행사와 대학생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경대학교 신문사에 무궁한 영광을 바라며 서경대 학우들을 위해 더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대신문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경신문의 탄생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경신문은 대학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학문적인 소양을 기르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가며,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68년 동안 서경신문은 학내의 다양한 이슈를 보도하고 분

석하여 학생들의 의식과 관심사를 대변하면서 학문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기자, 편집자, 사진기자,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되어 왔습니

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서경신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학과 사회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통해 대학이 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방미영 (서경대신문사 주간)



편집장 이예은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7대 편집장 소프트웨어학과 19학번 이예은입니다.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축하합니다. 올해는 편집장으로서는 신문사의 창간을 축하할 수 있음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습기자의 신분으로 창간 66주년을 축하하던 글을 작성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68주년이라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축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신문사실에 놓인 오래된 컴퓨터의 파일을 열람해 봤습니다. 파일을 정리하면서 선배 기자들이 걸어온 지난 발자취를 살펴보니, 우리 신문사가 얼마나 오래되고 견고한 집단인지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켜켜이 쌓여 있는 원고부터, 아이디어 회의록, 출사본까지 마치 추억 여행을 떠난 듯했습니다. 제가 작성하고 있는 이 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추억으로 남겠지요, 시간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욱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해보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신문사, 학업, 아르바이트 그리고 학교생활까지. 넘쳐흐르는 욕심 앞에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지만 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핑계라는 달콤한 유혹 속에 속지 않으려 합니다. '처음'이라는 낯설지만 설레는 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자신을 제책질하며 발전하는 사람 그리고 편집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이면서 대면 행사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저희 신문사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더욱 생생한 소식과 알찬 정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8년간 늘 그랬듯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편집장 송민경



안녕하십니까, 서경대 신문사 부편집장으로 인사드리는 글로벌 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21학번 송민경입니다. 이번 5월 23일로 맞이하는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68주년을 경축합니다.

저희 신문사는 서경대의 회로애락을 함께하며 68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써왔습니다. 긴 역사를 쓰고 있는 현장에 나란히 하다니 감축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로 저는 부편집장이 되어 문화면을 전담하고, 뉴미디어부 부장으로서 카드 뉴스 제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사 블로그에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이렇게 바쁜 줄이야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아주 바빠졌으나, 기사만 작성하던 때와는 또 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자들을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처럼 공사다망하신 와중에도 매번 서경대 신문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축사까지 한 자 한 자 들여다봐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빠 지내는 나날에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서경대 신문을 향한 관심은 저희에게 늘 도움이 됩니다. 보다 나은 신문을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에 신문이 발행됐다고 해서 고민이 끝난 건 아닙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 역시 보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꾸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축하하며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라는 명성에 걸맞기 위해 부지런히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자 이종은



안녕하십니까, 서경대 신문사 제64기 정기자 아동학과 19학번 이종은입니다. 어느덧 4년째 함께하고 있는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19년도 2학기에 수습기자로 입사해 65대 부편집장과 66대 편집장을 맡고, 올해는 다시 정기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있어 서경대 신문사는 대학생활의 전부이며, 지적 갈증을 해소해준 존재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오래 이어진 팬데믹은 서경대 신문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각과마다 배부되던 종이신문은 지면 발행이 취소됨에 따라 PDF파일로 온라인으로만 공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대의 따른 매체의 변화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종이신문과 그의의에 대해 생각해보 수 있었습니다. 종이신문이 가진 뛰어난 장점인 지적 편식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접할 때는 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이끌려, 혹은 기존에 관심이 있던 카테고리의 것만을 읽게 됩니다. 서경대 신문은 이미지가 과잉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이 모여서 구성된 형식하기에 비교적 지적 편식이 덜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경대 신문 외 포털의 기사를 볼 때에는 나도 모르게 관심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록 인생은 다채로워지니까요.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의 마무리를 장식해준 우리 신문사에게, 우리 신문사를 이끌어 주고 있는 현 편집장님과 부편집장님 그리고 정기자들과 수습기자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질 서경대 신문사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수습기자 윤정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7기 정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자공학과 22학번 윤정현입니다.

봄기운이 만연한 5월, 서경대학교의 신문사가 6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6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신문사는 전반적인 학교의 소식을 전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풍요로운 학교 커뮤니티를 가꾸어왔습니다. 저의 신문사는 68의 거대한 숫자 앞 작고 미미한 수준이지만, 학우 여러분의 대학 생활 한편에 저와 신문사가 조금이나마 존재할 수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겨울에 여름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멀리 있는 여름은 생각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봄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조금의 차이가 앞사귀의 색을 변화시키듯, 새싹 같은 바람으로 다가 학우분들의 더 나은 대학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자치기구와 신문사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경대학교의 학생, 혹은 청춘을 공유하는 22살의 한 청년으로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대해 많은 믿음과 응원을 보냅니다. 실패하고 어긋나 무너져버려도 내 마음속 조금으로, 우리의 하루가 조금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 하나 얼굴에 올려, 우리의 시간이 조금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에도 햇살 드는 창가엔 파스칼이 기분 좋아 춤을 춰요. 세상이 아무리 추워도 삶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저와 신문사가 더욱 뜨거워 햇살 아래 다양한 글과 사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수습기자 금예진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67기 정기자 아동학과 21학번 금예진입니다. 작년 가을 신문사에 입사한 것이 생생한데 어느덧 이렇게 정기자가 되어 신문사 창간 축사를 쓸 수 있어 영광입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신문사가 이렇게 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많은 분들에게서 신문사를 위해 힘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교내 유일한 언론기관으로서 1947년부터 지금까지 학우분들에게 많은 소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교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신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신문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SNS는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주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신문만의 깊이 있는 보도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문의 역할과 가치를 잊고 학우분들께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습기자 한채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68기 수습기자 아동학과 23학번 한채린입니다. 먼저 신문사의 일원으로서 창간 68주년을 축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원래 신문을 즐겨 보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왔던 제가 어느새 신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글로만 보였던 기사가 직접 뛰어나고 부딪쳐보니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단순한 글이 아닌 그 속에 담겨 있는 기자의 정성과 노력만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어떤 단어가 가장 어울릴지, 더 나은 표현은 없을지, 정적이 아닌 개인의 감정이 담긴 것은 아닐지 등의 고민 끝에 겨우 초고를 완성했음에도 수정할 부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들은 편집장님과 부편집장님 그리고 선배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기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의 과정을 반복하며 마침내 기사가 완성되고, 발행된 신문 속에서 나의 기사를 봤을 때는 정말 말로는 표현 못 할 막대한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며 다음 신문 작성 때는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과 함께 내가 원래 신문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사 작성에 진심인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신문에 들어온 지 아직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경대 학우분들에게 훌륭한 기사를 보여드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열정으로 가꿔오신 신문사인 만큼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신문사를 기대하며 지난 68년간의 신문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습기자 김나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68기 수습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어학부 일어 전공 23학번 김나연입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8년 동안 서경대 신문사가 이어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신문사 선배님들과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긴 전통을 자랑하는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일원이 되어 축사를 쓰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새로운 부원으로서 저는 무엇이든지 도전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아직은 낯설지만,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저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문사 활동은 저에게 여러모로 큰 교훈을 줍니다. 그동안은 외면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니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어딘지 계속해서 생각해볼게 됩니다. 바람직한 기자는 언론의 미래를 위해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라는 대표 문구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취재하며 학우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신문은 국민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대중매체의 발달로 신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여파로 서경대 신문 또한 지면 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우 여러분께 더 쉽고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서경대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은 신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습기자 김나연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기 수습기자 아동학과 22학번 김나연입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어느덧 창간 6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무사히 68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과 그 긴 시간 동안 신문사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문사를 향한 여러분들의 지지 덕분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6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항상 학우분들께 진실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전달하는 내용은 달라져도 이 다짐 하나만은 변하지 않는 채로 아직도 신문사 내에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을 본받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기사를 제공하는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신문사 일을 그냥 기사 작성 정도로 다소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신문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신문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치열한 현장에 한번 놀라고, 그 단계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정 넘치는 정기자분들을 보면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지금의 저는 정기자분들을 보고 많이 배우며 이렇게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을 지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다짐합니다.

제가 이런 꿈을 꾸도록 만들어준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습기자 유지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68기 수습기자, 아동학과 20학번 유지우입니다. 우선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입학했을 당시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었고, 비대면 수업도 2년간 지속되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아쉬운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학교에 가게 된다면 꼭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면으로 전환된 후, 올해 학교에 처음 다니게 되면서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 바로 교내 신문사였습니다.

학교의 생생한 소식들을 취재하여 직접 학우들에게 알리고, 색다른 아이디어와 주제를 담은 기사를 통해 학우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습기자 지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교내 신문에 제가 쓴 기사를 실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처음 제가 쓴 기사가 실린 신문이 창간되던 날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 수습기자로써 기사를 써 본 횟수는 적지만, 한 학기 동안 함께한 신문사 부원들과 편집장님, 부편집장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기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작성되는지, 꼭 들어가야 할 내용과 빼져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다른 부원들의 기사도 읽어보며 배울 점도 많이 얻고 스스로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신문사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의 견문을 넓히고 작문 실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학교생활과 병행하며 조금 힘든 적은 있었지만 매 순간 즐기며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를 대표하는 자치기구로서 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어 정말 보람찼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우들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경대 2023 대동제



2023학년도 서경대학교 대동제 'UP : TO YOU'가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대동제 UP : TO YOU는 학업으로 지쳐 있을 학우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과 학우들이 주체가 되어 대동제를 마음껏 즐겼으면 하는 '위로' 총학생회의 바람이 담긴 제목이라고 한다. 소제목은 'Live it up'으로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의 순간을 즐기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개최 첫 날인 24일 수요일에는 서경대 신문사를 비롯해 학과별 부스 운영이 시작됐다. 이후 둘째 날인 25일 목요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아리 공연과 영화영상학과 영화 상영, 아티스트 축하공연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인 26일 금요일에는 소모임과 실용음악학부, 무용예술학부의 공연이 이어졌고 '네 맘대로 도전 100곡' 이벤트와 아티스트 축하공연, DJ 페스티벌이 진행됐다.

위로 총학은 축제 기간 동안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모집한 스태프를 곳곳에 배치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티스트 공연 시에는 재학생존을 운영해 외부 인원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통제 하면서 재학생들이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작년과 달리 서경대만의 프레임용 포토부스를 운영하고, 단과대 별 마스코트 캐릭터들을 배치해 학우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각 학과별로 운영한 부스들은 과의 특색이 드러나도록 기획해 다양한 부스에 참여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게다가 소모임과 동아리, 예술계열 학과의 무대는 대동제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줬다. 열정으로 가득한 서경대학교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꾸려 나갔던 대동제 UP : TO YOU의 현장을 서경대 신문사와 함께 돌아보자.

대동제 부스, 어디까지 즐겨봤니?

따스한 봄에 열린 2023 대동제를 준비하는 부스마다 설렘으로 생기가 돌았다. 다양한 컨셉부터 먹거리까지 즐길 거리가 많았던 이번 대동제 부스. 밤 부스로는 모두 주점을 운영했다. 서경대 신문사 취재부는 낮 부스 위주로 탐색해봤다.

인문과학대의 글로벌비즈니스학부는 각 언어전공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일어전공은 타코야끼, 중어전공은 마라탕, 불어전공은 마카롱과 감자튀김을 주력으로 삼았다. 영어전공은 타로를 볼 수 있는 카페를 운영했으며 노어전공은 '캔노어'로 변신해 토스트를 팔았다. 한편 광고홍보콘텐츠학과는 닭꼬치로 청운관 앞을 지나는 학우들의 발길을 멈춰 세웠다. 인문대 학생회는 구슬 아이스크림, 식혜 등 간식거리를 판매했다. 특히 구슬 아이스크림은 인기가 많아 완판을 기록했다.

이공대학에서는 토목건축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금융정보공학과, 나노화학생명공학과, 물류시스템공학과, 도시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와 이공대학 학생회 부스까지 총 9개의 부스가 열렸다. 토목건축공학과에서는 열기를 식혀줄 식혜를, 금융정보공학과에서는 짭짤한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었다.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동전 던지기 게임과 숫자

뽑기,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전자공학과에서는 피카츄 돈가스를 판매했고, 풍선다트 게임이 운영됐다. 나노화학생명공학과에서는 교복을 맞춰 입은 학우들의 손에서 달콤한 와플이 만들어졌다. 물류시스템공학과는 시원함을 더해줄 과일 컵 화채, 도시공학과는 콜팝을 준비했다. 소프트웨어학과는 보드게임 진행과 함께 '두루' 미와 '뽀꾸미'라는 표어 아래 '두루치기'와 '순대볶음'을 판매했다. 이공대학 학생회 부스에서는 슬러시와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했다.

사회과학대에서는 아동학과, 공공인재학부, 군사학과, 경영학부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부스까지 총 5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아동학과는 키라키라 메이크업과 떡꼬치를 팔았는데, 올해는 뿌링클 떡꼬치가 추가됐다. 공공인재학부는 달고나, 쫄면, 식혜로 메뉴를 구성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군사학과는 학과만의 특색을 살려 사격 게임을 준비했다. 경영학부는 경영오락실이라는 컨셉으로 다트, 펀치 기계와 뽑기 판 등을 선보였다. 사과대 학생회는 더운 날씨에 맞춰 아이스크림 토핑이 올라간 추로스 와 아이스 망고 바 등을 판매했다. 사과대 부스를 지날 때면 들려오는 군사학과와 경영학

과의 열띤 부스 홍보 덕에 지나가는 학우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예술대학은 멀리서 봐도 예술대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형형색색의 장식품으로 부스를 꾸민 덕에 행인들의 발길을 멈춰서게 했다. 디자인학부는 학우들이 직접 제작한 굿즈를 판매하는 플라마켓뿐만 아니라 인생네컷, 플라로이드, 영수증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미용예술대학 부스에서는 헤어와 메이크업 스타일링으로 화려한 솜씨를 뽐냈다. 실용음악학부는 낮과 밤 모두 주점을 운영했는데 주점에서는 화채와 삼겹살 등을 판매했다. 아트엔테크놀로지학과는 핫드그와 소다 등 산뜻한 간식들로 손님을 맞이했다. 스포츠엔테크놀로지학과는 '체대를 이겨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펼쳤다.

자치기구 중에서는 신문사와 총동아리연합회만 부스를 운영했다. 신문사는 지면 신문과 간식 나눔 이벤트를 벌였으며 페이스페인팅과 감성 카메라 사진 촬영 사업을 진행했다. 총동아리연합회 슬로건인 '든든'을 재치 있게 활용한 '뽀' 다방으로 탈바꿈해 냉커피, 미숫가루, 딸기라떼 등을 판매했다.

[총학생회 인터뷰]

- 정학생회장 김희범 (문과 17) / 부학생회장 박정현 (물류 18)

Q. 대동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총학생회를 포함하여 이하 학과 학생회까지 모두 2023 서경대학교 대동제 UP : TO YOU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올해 대동제는 날씨를 정하는 기획단계부터 학교의 여러 일정 및 행사와 겹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느낀 것처럼, 일부 학우분들께서도 대동제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거운 행사를 만들고자 대동제의 내실을 다지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전 대동제에는 없던 대동제 테마, 포토부스, 각종 프로모션을 포함한 총학생회 이벤트 등을 일차적 준비했습니다.

각종 어려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우분들께서 대동제를 즐겁게 즐겨주시고 다시금 캠퍼스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다행인 마음도 듭니다. 대동제를 비롯하여 과거에 진행되었던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행사에 있어 저희 위로 총학생회를 질책하여 주시고, 응원해주시며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Q. 대동제 준비 과정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준비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를 대신하여 대동제 풍선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동제 이름에는 UP : TO YOU (즐기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당신을 위로(UP)라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UP 테마의 형상화를 위해 풍선을 준비하여 각 부스별로 풍선을 달아 꾸며주고 축제를 즐기러 오신 학우분들께 풍선을 제공하여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획하였으나, 풍선 제작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부스에 설치가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선책으로 부스에 달아주기로 했던 풍선들을 기존에 제공하기로 했던 풍선들에 더해 더 많은 수량을 학우분들에게 제공해주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계획을 변경하며 학우분들께서 좋아하실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학우분들이 풍선을 받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대동제에서 총학생회 부스 이벤트 등 자체 컨텐츠도 많이 준비하셨는데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동제 내 총학생회 부스 이벤트는 총 3가지였으며, 자체 콘텐츠는 2가지였습니다. 부스 이벤트로는 학우분들의 숙취를 덜어줄 숙취해소제 무료 나눔 이벤트와 학업으로 지쳐 있는 학우분들의 피로를 해소해줄 에너지 드링크 무료 나눔, 기존 신입생 기념품으로 제공되었던 SKU 굿즈 중 학우분들이 필요로 할만한 굿즈 들을 나누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학생회 자체 콘텐츠 중 네 맘대로 도전 100곡이라는 콘텐츠는 팀 단위의 공연이 제한되어 아쉬워하셨을 일반학우분들도 본인의 끼를 뽐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하였으며, 총학생회 부스 내 진행한 콘텐츠는 도레미파솔라시조라는 콘텐츠로, 새로운 인연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학우분들이 다시금 설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경대학교의 대동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치 있는 부스들 덕분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인근 외부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긴 축제였다.

함께 부스를 운영하면서 동기를 넘어 선배 사이의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특히 평소에는 친해질 기회가 많지 않았던 타과 학생들끼리의 교류도 볼 수 있었다. 앞서 있었던 단과대별 체육대회는 각 학과만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다

면, 이번 축제는 서경대 학우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인 것이다.

자신의 과 부스를 홍보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학우들, 강의가 끝나고 구경하는 학우들, 부스 체험을 즐기는 학우 등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낮과 밤의 다른 콘셉트를 보여준 몇몇 부스들 덕분에 눈과 입이 실 새 없이 즐거웠다.

부스 외에도 동아리와 소모임 그리고 영상영 화학과, 무용예술학부, 실용음악학부에서 보여준 기대 이상의 무대로 축제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다. 더불어 긴장한 기색 없이 완벽하게 무대를 즐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 무대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축제의 마지막 시간마다 대미를 장식해 주었

던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학우들의 흥을 돋우었다. 스코 스쿼어의 땅이 울릴 정도로 신나게 뛰는 학우들의 모습은 아티스트에게 감동으로 훌륭한 공연에 대한 보답이 되었다.

축제에 참여한 순간만큼은 과제와 시험을 잊고 가벼운 마음으로 잠시나마 쉬어가며, 종강을 향해 달려가느라 지친 우리를 충전해 주는 시간이었다.

[재학생 인터뷰]

- 이예은 (아동 20학번)

Q. 서경대학교 축제의 다양한 부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스는 무엇인가요?

디자인학부가 진행한 플라마켓 부스의 제품들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예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학교에 이런 동아리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부원분들의 의견이 되신다면 온라인상에서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축제에서 추가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포토부스는 프레임이 예쁘고 사진도 잘 나와서 추억 남기기에 좋았지만, 여러 명과 사진을 찍을 때 불편함을 느껴서 내부에 올라설 수 있는 단상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연예인 공연 외에 많은 동아리 공연들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인 인터뷰]

- 한슬기 (가명)

Q. 올해 서경대학교 축제에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이 축제 공연에 온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스에서 놀거리를 즐기며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연예인 공연 외에도 다양한 동아리 공연들을 관람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Q. 축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이 있나요?

무용예술학부의 댄스 공연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댄서분들의 강렬한 눈빛과 몸짓 하나하나에 시선이 가서 몰입하게 되는 무대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스 음식 중 아동학과와 떡꼬치와 군사학과와 대패삼겹비빔면을 정말 맛있게 먹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재학생 인터뷰]

- 박준서 (가명/ 20학번)

Q. 축제 부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동기들과 함께 콘셉트에 맞는 메뉴 선정과 드레스코드 등을 구상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즐기는 축제였던 만큼 기대감이 컸고, 그만큼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Q. 만약 내년에 또 부스를 운영하게 된다면 추가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낮 부스를 조금 더 보완해서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축제 때 홍보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밤 부스였던 주점은 위치가 조금 아쉬웠고, 그 외의 부분은 모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생 인터뷰]

- 김채현 (가명/ 경영 20학번)

Q. 이번 축제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작년 축제는 추운 날씨 탓에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같아 활동의 제약이 없는 여름날의 축제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비해 대면 강의와 학교 행사가 활성화되었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의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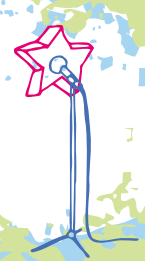
Q. 축제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대동제를 위해 제작된 프레임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재학생, 외부인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었고 다양한 소품까지 구비해두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번 축제를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 부스별 정보나 위치 등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진 것 역시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소모임이나 동아리 공연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진행되어 관객의 수가 적었던 것입니다. 아티스트의 공연이 작년에 비해 길게 진행되었는데 그 시간을 줄이고 재학생들의 공연 시간을 늘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공연 ~



부스 ~



연예인 ~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 43주년 맞은 5·18민주화운동, 오월의 봄을 기억해

2023년 5월 18일, 학우들은 뭘 했는가? 평소와 똑같이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간 학우, 아르바이트를 한 학우, 집에서 휴식을 취한 학우 등 어느 날과 다른 것은 아주 일상적인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43년 전, 5월 18일에는 광주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와 국

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이 시민에게 총 부리를 겨누고 무차별적인 살상을 저질렀다. 분노한 시민들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폭력적인 군부집단에 맞서 용감하게 저항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진 항쟁으로, 수많은 ‘평범한’ 시민이 부상을 당하고 모진 고

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숨졌다. [출처: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5·18민주화운동은 아직까지도 진상이 명쾌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40주년인 2018년, 다행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다. 2020년에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올해 말 조

사를 종료한다. 올해로 43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5·18민주화운동’ 역사 부정, 왜곡, 폄훼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슴 아픈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있을 것이다. 푸르른 5월,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돌아보자. 이번 현장르포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서울의 봄’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이 4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1987년 6월 항쟁, 1991년 5월 투쟁 등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는 여러 차례의 운동이 확산되었다.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많은 시민들의 싸움과 희생 끝에 우리나라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5.18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 새겨 보도록 하자.

군사정권이 지배하던 1960~70년대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유신 헌법’과 강력한 독재정치로 인해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사건 이후,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이 희망의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른다.

‘서울의 봄’으로 민주화의 실현을 기대하던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전두환, 노태우의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 지휘권을 장악한다. 권력 장악에

맞서 서울 지역 대학생들은 1980년 봄, 캠퍼스를 벗어나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된다. 1980년 3월 서울대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4월 전국의 주요 대학들에 학생회가 구성되었고, 5월에 본격적인 민주화 투쟁을 위해 거리로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5월 15일 서울역에서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결집하여 계엄령 해제와 민주 헌법 개정, 노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했다.

신군부는 정권 확립을 위해 5월 17일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임시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내각을 장악한다. 계엄령으로 인해 각종 언론이나 방송이 검열되었고, 대학들은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집회·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주 시민들은 5월 18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항쟁을 시작했다. 이에 신군부는 군사를 투입해 시위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하였다. 계엄군은 광주를 통제하고 언론 또한 탄압하여 외부 사람들은 광주의 상황을 알 수 없었다. 결국 5월 27일,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 5.18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를 향한 ‘서울의 봄’은 막을 내리게 된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발생한 민주화 운동들의 시초가 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국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고, 민주화를 꽃피우려는 희생자들의 간절한 외침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완성되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후손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마음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



▲ 출처: NEWSPIR

2018년 3월 1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이 제정됐다. 이는 같은 해 9월 14일에 시행됐으며, 진상규명 수행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설치됐다. 5.18조사위는 정부 공식 기구로서 5.18 진압 당시 실질적인 지휘체계와 발포 명령 체계를 조사하고 광주 현지에서의 민간인 살상, 상해, 성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을 밝히며 잠재적 피해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위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해 5.18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을 주요 책임자로 꼽고 조사내선서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추진했다. 앞서 진행했던 문헌 조사 75만 건과 장사병 등 800여 명의 조사에서 지휘체계와 발포 명령 체계 등에 대해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11월 23일, 5.18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전두환이 병환으로 숨

지면서 진상규명 조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됐다. 그럼에도 조사위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의 사망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노컷뉴스]

그리고 2023년 5월 7일,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5.18 계엄군의 성폭행 의혹이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여대생과 여고생들을 상대로 한 계엄군의 성폭행은 총 51건으로 밝혀졌으며 집단 성폭행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일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일부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부대를 특정해 교차 검증작업도 진행했다. 성폭력 사건 총 51건 중 20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했고, 7건은 당사자나 가족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해 현재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한다.

이후 5월 17일 개최됐던 대국민 보고회에서 조사위는 5.18 당시 입매장 된 것으로 보이는 유골 3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유골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발표했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군의 진압 작전에 대한 재구성하고 함께 사망자, 부상자 분석을 토대로 나온 수치로, 구체적인 총격 횟수가 조사위의 조사를 거쳐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또한 계엄군의 집단 발표 이전에 이미 일부 병력에 실탄이 분배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광주 시민들의 무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실탄이 분배됐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사위는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의 진술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에게 발포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첨단 조사기법을 동원해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올해 12월 26일까지 조사를 종료하고 내년 6월 종합보고서를 채택해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출처: 동아일보]

5월 18일의 비극은 멀리 있지 않다



▲ 출처: 오월의 청춘

이제는 꽤 많은 세월이 흘러 5.18 민주화운동은 먼 옛날의 이야기만 같지만 5.18은 물론이고 이념이 불러온 그 뒤의 많은 항쟁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 필자의 전공 교수님인 신혜원 교수님은 이한열 열사보다 한 학번 위로, 6월 민주항쟁 당시 연대 교문은 모두 폐쇄되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경험도 전해주셨다. 필자가 다니던 영어학원 선생님은 대학생일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해 투쟁하다 늘 밤 중에 부모님 몰래 창문을 타고 집에 들어가셨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다.

친구 대신 맞선에 나갔다 희태와 사랑에 빠진 명희는 보안부 대공수사과장인 희태 아버지 기남의 방해로 헤어지지만, 광주에서 다시 만나 함께 떠나기로 한다.

심해진 계엄령으로 군인들이 광주 길거리에서 있는 대학생들을 모조리 체포하는 과정에서 명희를 구하려던 희태가 다치고, 밀려드는 환자를 두고 갈 수 없었던 둘은 광주를 떠나지 못했다. 그 사이 상황은 악화해 군인이 일반인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거리

에 환자들이 쏟아진다. 나주로 가기 위해 명희 아버지가 찾아오지만, 운동권 학생을 치료한 희태 때문에 입지가 위태로워진 기남이 희태를 감금해 명희는 아버지와 같이 떠나지 못한다. 다행히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성당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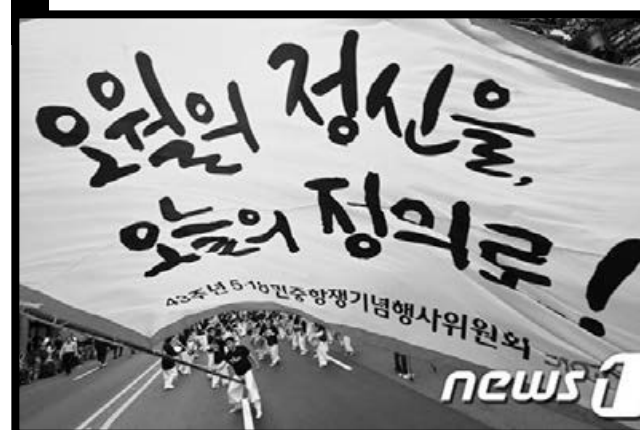
하지만 식 중에 명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라진 동생 명수를 찾기 위해 숲으로 간 명희와 희태는 갈림길에서 헤어지게 된다. 명수를 찾은 명희는 군인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명수에게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쥐여주며 도망가게 한다. 뛰어가는 명수를 향해 쓴 송에 명희가 대신 맞는다. 총소리에 놀란 명수가 떨어뜨리고 간 시계를 경수가 숲속에서 죽어가는 명희에게 전해주자, 명희는 숨을 거둔다.

희태도 군인에게 들켜 연행된 후 하업없이 그녀를 찾아 헤매다 자살 시도를 하지만 실패한다. 40년이 흘러 명희가 사라진 41번째 해에 명희에게 전해졌던 시계와 결혼식 날 서로 주고받기로 했던 기도문이 희태에게 돌아온다.

“그 5월이, 어느 때처럼 그저 별 좋은 5월이었더라면 평범하게 사랑하며 살아갔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 ‘오월의 청춘’. 자신이 쓴 기도문처럼 희태가 명희 대신 겪게 된 ‘무엇보다도 더 힘든 시련’인 남은 자의 삶을, 그 해 광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견디며 살아오고 있다. 당시 광주 사람들은 유달리 비범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모두 한 명의 명희고, 또 희태였다. 지금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살아갔어야 했던 그저 본인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43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우리 대신 5월의 광주에서 맞서 싸운 수많은 명희와 희태를. 자신에게 돌아온 명희의 유품과 기도문을 보고 살아보려는 의지를 갖게 된 희태처럼, 살아남은 광주 시민분들 모두 마음 편히 살아가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가 5·18을 기념하는 다양한 방식



▲ 출처: 뉴스1

올해로 43주년을 맞이한 5월 18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는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 개최됐다. 대표적인 기념행사로 꼽히는 5·18 전야제는 ‘오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 맞추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 여파로 41주년 행사는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지난해에는 전야제가 취소된 바 있어 이번 43주년 행사는 더욱 성대하게 펼쳐졌다.

62개의 참가단체로 구성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3월 시민 공모를 통해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를 올해 기념행사 공식구호로 선정했다. [출처: 뉴스핌] 한편 대구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5월 18일 대구, 경북 시민 518명이 “민주주의를 열망한 43년 전 1980년 그날의 외침을 잊지 말자”며 ‘오월 정신’ 계승을 선언했다.

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 ▲5·18에 대한 왜곡, 폄훼 중단 ▲2·28 대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구에서도 5·18 정신 계승 ▲대구, 광

주 ‘달빛동맹’ 강화 차원 민주주의 교육 실시 ▲민주주의, 민생, 기후환경, 전쟁 등 각종 위기 극복을 위한 ‘오월 공동체 정신’ 연대 등을 주장했다. [출처: 뉴스1]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5·18 기념, 문화 행사가 진행됐다.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5·18 민주화 운동 및 한국현대사 도민 참여형 공모사업 행사를, 울산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는 5·18 그림,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원주문화의 거리에서는 오월 사진전 및 518정신 헌법수룩 시민서명 캠페인을 제43주년 5·18민주항쟁 원주강원 기념행사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경기, 경남, 제주에서도 사진전이 열렸으며 전남, 전북, 충북, 대전, 부산, 등에서 추모식, 역사 바로 알기, 전시, 음악회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세종에서는 5·18km 걷기행사가 열렸다. 5·18민주항쟁기념행사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걷기행사 후에는 5·18추모밥 나누기, 제43주년 5·18민주항쟁 세종기념식이 이뤄졌다. 행사 전날부터 행사 당일인 5월 18일까지는 5·18기획전도 운영했다.

5월 18일 당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5·18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가득했던 필자는 세종의 5·18km 걷기행사가 눈에 들어왔다. 특히 가수 선이 광복절을 기념해 ‘8·15란’을 개최한 것이 기억에 남았다. 삼일절, 1945년, 광복절을 상징하는 각각 3.1km, 4.5km, 8.15km 코스를 선택해 완주하면 됐는데 이를 보고 5.18km를 뛰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5.18km를 뛰면서 녹음이 우거지고 푸르름이 가득한 풍경을 마주하게 되니 5월을 ‘신록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유를 단번에 깨달았다. 동시에 이렇게 푸르고 맑은 날, 지금 우리와 또래였을 광주 시민들의 무참한 희생이 떠올라 숙연해졌다. 이렇듯 각자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연표

[출처: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 1979년 10월 겨울공화국의 붕괴 : 박정희 대통령 피살
- 1979년 12월 유신잔재의 군사 쿠데타 : 신군부의 등장
- 1980년 3~5월 민주화의 열망
- 1980년 대학 밖으로 나서는 대학생들
- 동상이몽 속의 정치권
- 안개정국
- 1980년 5월 5·17 비상계엄령 확대조치
- 1980년 5월 계엄군 투입
- 1980년 5월 전남대 정문 앞 시위
- 1980년 5월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
- 1980년 5월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
- 1980년 5월 학살, 계엄군의 집단 발포
- 1980년 5월 시민군과 광주 공동체
- 1980년 5월 광주 공동체
- 1980년 5월 최후 항쟁
- 1980년 5월 남을 위한 행진
- 1987년 6월 항쟁과 광주청문회
- 1995년 12월 책임자 처벌
- 1997년 4월 국가기념일 제정
- 2011년 5월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출처: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주간칼럼

청년과 6차산업

주간 밤미영 교수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동의촌은 도라지청을 생산하는 작은 로컬기업이다. 동의촌이 경남 산청군에 자리를 잡고 도라지를 재배하는 기업이 된 것은 폐렴으로 고생을 하던 정상욱 대표의 건강 회복을 위함이었다. 공기 청정한 산청군에서 도라지로 만든 천연제품을 먹은 후 건강을 회복한 정상욱 대표는 본인의 체질을 토대로 도라지의 효능을 소비자에게 널리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촌 도라지 제품의 주가 되어 온 마케팅은 바이럴 마케팅으로, 온라인 마케팅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행히 동의촌은 온라인 마케팅에서의 취약 부분을 자녀인 장서정 팀장의 합류로 극복이 가능해졌다. 장 팀장은

1차 생산과 2차 가공산업이 이어 체험 요소를 결합한 6차산업으로 문화마케팅을 과감히 접목했다. 고객단을 생산지로 초대하여 관광 투어 코스를 만들어 운영하는가 하면, 라이브커머스쇼핑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마케팅을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 매출보다 월등한 매출 증가세를 보였고, 꾸준한 충성고객도 늘어 동의촌 제품에 대한 구매층을 확대하였다.

라이브커머스는 생방송 방식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쇼핑 방식을 말한다. 커머스는 텔레비전을 통해 시작된 홈쇼핑 방식이 모바일 커머스로 이동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연동하여 소

비자들에게 다양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는 최근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직접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하는 소비자층이 확대되고 있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3년 2조원 대를 바라보고 있다.

소량생산과 수제품이 대부분인 지역 로컬기업들이 대량 조달로 인해 그동안 진입하지 못한 홈쇼핑의 높은 벽 대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으로 날개를 달고 있다. 동의촌 또한 고품질 소량 생산으로 인해 라이브커머스를 택하여 이 모바일 커머스로 이동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연동하여 소

제공하며,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나 의견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6차 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들이 상호작용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산업과의 융합,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들은 6차산업 시대에 큰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확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디지털 기술에 능숙하게 다루는 청년들에게 기회와 장이 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역량을 통해 6차산

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산업 구조와 일자리 패턴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의 일부 직업은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대체될 수도 있어 청년들이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습과 적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들은 6차산업 시대에 기회와 도전을 마주하게 되는데, 기술적인 역량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과 혁신적인 사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와 기업들은 청년들의 교육, 역량 개발, 창업 지원 등을 통해 6차 산업과 라이브 커머스 시대에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기자의 눈 |

커뮤니티라는 울타리와, 익명이라는 가면에 숨은 가해자들

지난 4월 16일,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해 숨졌다. 해당 학생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투신 과정을 생중계했고, 이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숨진 학생이 당일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성과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자세히 언급하자면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드디어 수면 위로 문제가 드러났을 뿐, 우울증 갤러리 내는 이미 그루밍 성범죄의 온상이었다고 한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의지하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행하는 것이다. 우울증 갤러리는 특성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에 취약했다. 이를 이용한

가해자들이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해 피해 여성에게 술이나 약물을 먹여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카톡 단체방을 개설해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집단이 있다는 정황도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됐다. 결국 지난 5월 26일에 디시 우울증 갤러리의 일명 '신림캠' 일원인 20대 남성이 마약 투약하고 미성년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투신 사건 이후 2차 피해를 우려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일시 폐쇄를 요청했으나 방송위는 이를 보류했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도 소수에 불과해 폐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 5월 5일,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여학생 2명이 자살 시도를 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이에 한국형사법무정

책연구원의 송재현 위원은 “국가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 생명 보호하는 일이다”며 “이처럼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출처 한겨레] 그럼에도 방송위는 우울증 갤러리를 차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5월 22일에 밝혔다. 다만 불법 정보는 개별적으로 삭제할 것이며,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샘러쉬(SEMrush)의 통계에 따르면 디시는 하루 평균 방문자 290만 명, 평균 페이지뷰 1억 7000만 회에 달하며 한국인이 많이 찾는 웹사이트 중 4위로 기록됐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의 커뮤니티다. 각종 혐오와 범죄를 일삼던 이들의 소굴인 '일베저장소'가 여기서 파생됐다. 2명이 자살 시도를 하는 일이 또 2년간 국내 인터넷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디시의 익명성은 너무나도 질다. 로그인도 필요 없이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플랫폼은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확보한다. 이는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출처 시사in] 그러나 디시는 이것 하지 않았고 익명성 보장 조항도 없다.

그렇다면 자체 검열시스템이 좀 좋을까? 아니다. 당장 몇 곳의 '음지화'된 갤러리를 보면 불법 콘텐츠들이 제한없이 공유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자정 작용이 이뤄지고 있는가? 그것 역시 아니다. 그들 사이에는 혐오가 난무하는 언행이 일종의 놀이 문화로 자리잡았으며, 문제를 지적하는 이는 조롱하거나 매도해 해당 갤러리를 떠나게끔 만든다.

따라서 커뮤니티가 법에 근거해 명확한 규정을 정립하거나 정부 차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부분은 폐쇄할 필요가 있다. 디시는 범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익명성'이라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다할 때의 이야기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러한 이들이 여기저기서 들쭉날쭉 할 바에, 차라리 한 곳에 모아두자고, 그러나 쓰레기는 단순히 쓰레기통에 모아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곰팡이가 피어 나고, 벌레들은 알을 까 그들만의 세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종은 기자

(20eur00@naver.com)

| 수습의 눈 |

PC주의와 디즈니, 그리고 마블

PC 주의란 주로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특정한 언어, 행동, 콘텐츠 등을 배제하거나 수정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디즈니는 최근 몇 년 동안 PC 주의에 맞춰 일부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차별이나 과격한 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PC 주의에 대한 태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일부는 이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디즈니가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종, 성별, 문화적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디즈니는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콘텐츠의 수정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디즈니의 지나친 PC 주의는 원작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예로 1년 전에 공개된 '인어공주'는 지금까지도 많은 매체에서 논란거리로 소비되고 있다. 일례로, 아프리카-아메리카계 배우인 할리 베일리(Halle Bailey)가 인어공주 아리엘 역으로 캐스팅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

조하는 디즈니의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공개됐던 다른 영화들을 살펴보면 '아수와 미녀', '말레피센트', '알라딘' 등 캐스팅에 관해 극찬을 받았던 터라 이번 논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 산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또한 PC 주의와 함께 흥행 하락세를 피할 순 없었다. 2019년 어벤저스: 엔드게임으로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마블은 국내 1,400만 관객을 불러들이며 대한민국에 거대한 히어로물 유행을 선도했다. 그러나 이후 '블랙 팬서 2'를 시작으로 평균 관객 수는 200만에 그치며 연

달아참패를 기록했다.

사실 이러한 PC 주의는 디즈니와 마블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계에 열풍으로 자리매김했다. 2021년 아마존 프라임으로 공개된 '위드아웃 리모스'는 톰 클랜시의 소설 '복수'를 원작으로 한 영화다. 간단한 줄거리로는 전쟁 중 작전을 진행하며 가족을 위해 복수한다는 내용이 다. 문제는 여자로 끼워 맞추는 PC로 인해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냉전 상황에서 중동에서의 분쟁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이처럼 원작이 고준과 맞지 않는 PC는 오히려 작품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PC의 등장 이후 전 세계 영화 산업을 주름잡던

'할리우드'라는 명성과, 세계적인 영화배우들, 거장들을 보유하던 미국 영화계가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PC 주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각각 상이할 수 있으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측면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현의 제한과 예술적인 자유에 대한 우려도 고려하며 성숙한 문화생활을 만들어가야 한다.

윤정현 수습기자

(tony0435@naver.com)

| 수습의 눈 |

아름이라는 것

아름답다는 표현은 주로 언제 쓰이는가. 감동적인 순간, 그림 같은 풍경을 보며 흐뭇한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필자는 그 외에도 외모나 패션이 뛰어난 사람들을 감탄할 때 사용했다. 그러다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던 중 의문이 들었다. '-답다'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일부 영사 뒤에 붙어 '꽃답다/ 사람답다/ 정답다'와 같은 표현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아름'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훌륭한 곳에에서만 사용되는 것일까.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는 뜻으로, '아름답다'의 옛말인 '아름답다'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어근 '아름답다'의 정확한 의미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아름다움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다. 중세 문헌 표기의 '아름답다'의 '아름'은 알다, 안다, 아름 등의 동음이의어를 가진다. '알고 있다'는 데서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찾는다는 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설의 '아름답다'는 15세기 문헌에 나타난다. "美 아다씨니(석보상절(釋譯詳節)

13:9, 1447年刊)"와 같이 '아답다'로 나타난다. 15세기 문헌에 '아'는 명사로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데 그 뜻은 '나'의 뜻이다. 즉, '아름답다'는 '나답다'의 어원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아름'의 어원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필자는 '아름'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가설들에 휩쓸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던 중 과거 미술 시간에 등장 미술에 대해 배우며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미'는 그 대상이 속한 시대의 환경, 종교, 사회의식 등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아름답다'는 매 세기 또 는 그것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도 계속해서 변화했다. 마치 유행이 바뀌는 것처럼 말이다.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주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쉽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엄격히 판단되어 사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별로라며 비방하던 누군가의 아름다움이 나중에야 이 시대의 유행이 되어 빛을 발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아름'의 의미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고 많은 가설들과 함께 바뀌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아름답다'를 함부로 정

의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다. 다수의 판단으로 소수의 '아름다움'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두가 자신만의 '아름'을 숨기지 말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의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러니 사회의 미의 기준에 속지 말고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펼치며 살아가길 바란다. 어쩌면 미의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기 마련이니까.

한채린 수습기자

(hanchaerin@skuniv.ac.kr)

만/파/식/적

거짓된 일기

필자는 글 쓰는 걸 좋아한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단어가 조합되어 하나의 문장을 완성했을 때, 묘한 쾌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에게도 기피하고 싶은 글이 있다.

바로 '일기'다. 일기의 장점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일기는 희미해진 기억을 상기시키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 쓰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일기가 방학 숙제일 때면 개학 전날 한 달치 일기를 급하게 몰아 쓰곤 했다.

그만큼 일기를 작성하는 건 고역이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억지로 빈칸을 채워나갈 뿐, 진정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다. 진정성 없는 글이 라니, 신문사 편집장이라는 현 상황에 빗대어 과거를 돌아켜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나는 왜 이렇게 일기 쓰는 걸 싫어했을까? 지금과 생각해보면 필자에게 일기란 '하루를 정돈하고 마무리하는 글'이 아닌 '거짓말의 창구'였던 것 같다. 울적한 하루였더라도 웬지 늘 마무리는 행복한 결말로 끝내야만 할 것 같은. 내가 쓰는 나의 일기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솔직할 수가 없었다. 부정적인 문장들로 일기를 작성하는 밤이면 스스로 패배자가 된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스스로 실패한 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생각했다. 실패를 인정하고 기록하는 건 성공의 발판이 된다던데, 필자는 그 기분을 공감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늘 마무리는 '좋았다', '행복했다'와 같은 긍정적인 문장들로 글을 마무리 지었다. 그날의 최악의 하루였더라도 말이다. 거짓된 결말로 일기를 작성하고 잠이 드는 밤이면 또 다른 유형의 우울감이 몰밀듯 밀려왔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이 기분을 유추한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까지도 일기를 쓰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해보고자 다이어리를 구매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다꾸열풍' (다이어리 꾸미기 열풍)이 불어온지라, 문구점에는 수많은 다이어리와 스티커들이 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맘에 드는 다이어리를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와 몇 장자를 끄적여봤다. 일기 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할 수 있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부정적인 기억보다는 긍정적인 기억들로 빈칸을 채우려는 자신을 발견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니, 새삼 깨달았다. 언제쯤이면 부정적인 기억에 솔직하게 마주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찌보면 필자는 남이 아닌 자신을 속이며 살아온 날이 더 많을지 모른다. 일기에 작성된 수많은 문장들로 말이다. 아무리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답이 없는 메아리 뿐 별다른 해답 없이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사설

'카공족' 논란의 이면

필자는 지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 최근 이처럼 카페에서 공부 또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 일명 '카공족'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작은 소리조차 내기 힘든 공간보다는 자유로운 카페가 더 집중하기 좋다고 얘기한다. 또한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 카페에서는 키보드 소리 때문에 노트북 사용이 어려운데 카페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를 찾는다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카공족이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투브 '비디오머그' 채널과 인터뷰를 진행한 카페 점주는 카공족은 란이 최근 더 불거진 이유에 대해 "매장을 운영하는 데 안정적이었던 마지막 해는 2019년"이라며 "코로나19로 몰류비, 유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중남미 쪽 이상 한파로 인해 원두값도 상승했다. 결정적인 건 계속 오르는 전기료"라고 토로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카공족이 카페 매출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전기료까지 오른 고물가 시대에 일부 카공족이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 등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타고 온 전동 키보드까지 충전하는 등 카페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이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며 매장 노랫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카공족에게는 음료를 팔아도 손해라는 카페 사장들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응해 카페 점주들은 와이파이가 차단, 전기 사용 제한, 이용 시간 제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재주문을 부탁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했지만, 카공족에 의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공족이 끼치는 피해와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당연히 이해한다. 그러나 카공족 논란은 그리 단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왜 집을 두고 밖으로 나가야 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발표한 청년 주거정책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근 청년층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에 따라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청년가구의 1인가구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자가점유율 및 자가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거형태, 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월세살이 하는 대부분의 청년이 고시원, 옥탑방 아니면 불법 방 쟁개기로 만들어진 방, 이런 곳에 사는 경우가 많아 자기 공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이미 "서울시는 왜 청년 문제를 스타벅스에 맡겨 두고 계십니까?"라는 건의를 통해 청년 공간의 부족으로 취업준비생 등이 결국 카페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출처 한국일보]

'카공족' 논란은 더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김예진 수습기자

(keumji7276@naver.com)

이달의 책

섬뜩하지만 달콤한 초콜릿처럼 - 위저드 베이커리 구경모



너무나 읽고 싶지만 인기가 많아 예약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인기도서가 있다. 책 '위저드 베이커리'가 그런 책 중 하나였다.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했다고 익히 들었던 터라 언젠가 읽어줘 하다가 우연히 잠깐 펼쳐보고 난 지 10년 가까이 흘렀다.

성인이 되어 읽은 청소년 소설은 얼마 없다. 그때에도 내용이 비슷하게 느껴져 청소년 소설에는 손이 잘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성인인데 청소년 소설을 읽다니'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큰코다친다. 바로 '위저드 베이커리'가 청소년 소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마냥 행복해야만 하기도 모자란 어린 '나'는 달콤한 빵의 기억조차 아프게 남았다. 엄마가 죽고 난 후, 아버지는 재혼을 한다. 그렇게 새어머니 배 선생과 의붓동생 무희와 함께 살게 되는데 배 선생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나'를 사사건건 지적하기 시작한다.

사춘기가 한창일 열여섯 살, 아버지와는 돈독하지 않은 관계에다가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가장 불편한 공간으로 변한 지 오래다. '나만 없어도 배 선생이 그리는 단란한 가정의 모습일 텐데...' 배 선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던 '나'는 어느 날 의붓동생 무희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다.

'나'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빵집 '위저드 베이커리'에 들어선다. 평범하게만 보였던 동네 빵집 위저드 베이커리는 어딘가 수상하다. 어쩌다 그곳에서 신세를 지게 된 '나'는 주인공인 마법사와 그를 옆에서 살뜰히 돕는 파랑새와 함께하며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느낌을 받는다. 종종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차례차례 맛보게 된다.

'위저드 베이커리'에서는 톡톡 튀고 기발한 레시피가 등장해 정말로 마법의 빵과 과자가 존재하는 것만 같은 착각도 든다. 과자를 먹으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솔깃해진다. 히트 제품이라고 언급된 것들은 특이나 탐나. 중요한 일을 앞둔 날 마인드 컨트롤이 잘되지 않을 때 부정 타지 않도록 몸속 부적이 될 '마인드 커스터드푸딩'은 실제로 쟁여두고 싶다.

"상처를 빨리 잊는 데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만큼 새로운 사랑도 무성하게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이어진 히트 제품, 실연의 상처를 빨리 잊을 수 있게 도와주는 '브로큰 하트 파인애플 마들렌'의 부연 설명이 마음을 울린다.

"사람은 자기가 애당초 가져본 적이 없거나 너무 일찍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품지 않는다."고 말할 만큼 '나'는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었다. 그런 '나'에게 커다란 안식처가 되어준 위저드 베이커리. 내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야말로 위저드 베이커리가 아닌지, 모두에게 위저드 베이커리가 있길 바라본다.

언젠는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간 적이 있다가, 늘 탄탄대로만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충실하게 살고 또 살아갈 것. 책 맨 뒤 작가의 말에서 위저드 베이커리의 섬뜩하지만 달콤한 초콜릿 같은 맛이 느껴진다.

송민경 기자 (tilldown012@skuniv.ac.kr)

이달의 전시회

음악과 커피, 그리고 멋진 전사가 있는 곳 - 상수 도식화



상수역 인근 어느 고즈넉한 골목에 위치한 복합 문화 공간 '도식화'. 이곳은 예술 전시와 커피 그리고 디저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갤러리 콘셉트의 카페다. 전시 공간은 1층과 2층 두 곳이 있는데, 내부 곳곳에 숨겨진 전시 작품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는 문병철 작가의 개인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시 테마는 '기억의 적층(PILE OF MEMORORIES)'으로 '터

프팅'을 기반으로 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터프팅이란 마치 잔디처럼 천 위에 실을 심는 직조 기법을 말하는데, 이는 섬유공예의 일부다.

전시 기간은 5/26일부터 10/31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전시 주제는 수시로 바뀐다고 하니 방문 전 사전 조사는 필수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 첫 번째로 분홍빛의 터프팅 작품이 반겨준다. 거울 연면을 분홍빛의 실이 감싸고 있어 마치 하나의 오브제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해당 작품을 배경으로 방문 인증 사진을 남기는 사람이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필자 또한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사진을 남겼다. 첫 번째 작품을 관람하고 메인 공간으로 걸음을 옮겼다. 카페 내부 입구 또한 범상치 않았다. 마치 깊숙한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터프팅 기법으로 만든 문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작품을 따라 쪽걸어 들어가면 음료와 다

저트를 주문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주문대 뒤편으로 실제 도식화에서 판매하고 있는 케이크와 우묵 솥은 터프팅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다. 감각적으로 배치해 놓은 작품과 케이크가 공간의 멋스러움을 더했다. 조형물과 주문대 사이에는 도식화의 시그니처 디저트인 '마들렌'이 판매되고 있었다. 송편 마들렌, 약과 마들렌, 간장 들깨 마들렌 등 다양한 종류의 마들렌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미 도식화는 마들렌 맛집으로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한다. 최근에는 SPC 삼삼과 협업하여 약과 쿠키를 판매하기도 하며 그 입지를 넓히고 있다. 주문 인증 사진을 남기는 사람이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필자 또한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사진을 남겼다. 첫 번째 작품을 관람하고 메인 공간으로 걸음을 옮겼다. 카페 내부 입구 또한 범상치 않았다. 마치 깊숙한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터프팅 기법으로 만든 문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작품을 따라 쪽걸어 들어가면 음료와 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이달의 드라마

지루한 일상 속 음식이 주는 즐거움 - 식사를 합시다 2 (2015)



서울에서 살고 있던 주인공 대영.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대영은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가 보편 가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세종시로 이사한다. 대영은 세종빌라 201호에 살게 되는데 옆집인 202호에는 대영의 초등학교 동창인 수지가 살고 있었다. 수지는 어린 시절 대영에게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 처음에는 대영에게 차갑게 대하지만, 점차 마음을 연다.

또 다른 주인공 상우는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이다. 외모, 집안,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수지가 이런 완벽한

조건을 보고 상우에게 관심을 가진다. 수지는 대영의 도움을 받아 상우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대영과 수지가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 이 외에도 여러 인물이 등장하면서 불법중축, 범죄자,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개된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직장생활, 자취방 잘 구하는 법, 가족의 소중함, 이웃 간의 정 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의 특징은 기존의 드라마들과 달리 일명 '떡방'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모든 화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통 한 화에 두 가지의 음식이 등장한다. 배 위에서 먹는 오징어회,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먹는 중식, 옥상에서 먹는 치킨이 나왔던 장면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또한 여름에 먹는 풍국수, 바닷가에서 먹는 대구구이와 같은 계절 음식이 등장해 여름철 특이한 식욕을 돋웠다. 실

연의 아픔을 겪은 후에 먹는 매운 쪽갈비와 김치 피자탕수육, 캠핑장에서 먹는 바비큐, 휴게소에서 먹는 소떡소떡과 닭꼬치, 시장에서 먹는 분식과 닭강정 등 스토리 전개도 중 적절한 타이밍에 계속해서 '떡방'이 등장한다. 대영과 수지가 같은 음식을 두고 정반대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작품을 시청하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드라마 안에서 음식은 기분이 좋을 때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등장인물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며, 때로는 화해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음식은 소소한 즐거움을 안겨준다. 오늘 하루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김예진 수습기자 (keumji7276@naver.com)

이달의 음악

마음을 든든히 채워주는 멜로디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즐거운 날에는 음식을 나눠먹으며 분위기를 즐기고, 우울하고 슬픈 날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내곤 한다. 텅 빈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노래들을 소개한다.



♫ <CHICKEN> - 육재

"그래 나는 치킨이 되고 싶은 걸 Baby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 Yeah 그래 이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치킨처럼 나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연예인에게는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치킨을 먹을 때조차도 고민을 하는 연예인의 고충을 생각해보게 된다. 가사처럼, 내 인생의 롤 모델이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주위 사물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면 그게 바로 롤 모델인 것이다. 하지만 연예인이 대중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처럼 모두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나를 상대방의 입맛에 맞출 필요는 없다. 모두의 입맛이 다르고, 치킨이 다양한 맛이 있는 것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유지우 수습기자 (milkyway_85@naver.com)



♫ <축제> - 온오프

"한동안 널 휘휘 저었던 줄이고 애태웠던 걱정들 후후 불어 골격 삼켰던 뜨거운 눈물도 모두 던져봐 오늘은 너의 날이야"

2018년 화제가 됐던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의 OST다. 상대방을 응원하는 마음을 음식에 대한 생각처럼 심상으로 표현해 아름답게 느껴진다. 속상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금세 마음이 풀어지기 마련이다. 하루의 끝에, 이 노래를 들으며 자신을 응원하고 위로하면 밥을 먹은 것처럼 든든한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130@skuniv.ac.kr)



♫ <사랑> - 레드벨벳

"내 심술로 널 깨뜨려 화내고 보채도 없어질까 봐 종일 종일 조바심 내고 보석처럼 널 아끼는 그 사람 나란 걸"

노래를 들으면 유리구슬처럼 투명한 사랑이 떠오른다.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유하며 사랑이 깨질까 봐 조심히 지켜 먹게 되는 마음을 생각해보게 된다. 가사를 곱씹어보면 사랑을 먹으면 그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사랑을 씹어 먹기보다 달콤한 그 순간을 사랑의 설렘처럼 오랫동안 천천히 느껴보는 건 어떨까.

이달의 장소

먹거리가 가득한 정겨운 공간 - 광장시장



▲ 출처 : 지역문화

바야흐로 5월은 축제의 계절이다. 푸르른 계절에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들은 지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반가운 존재다.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먹거리다.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그 자체가 '축제'인 장소, 광장시장을 소개해 보려 한다.

광장시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다. 광장시장은 1905년,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상설 시장으로서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청계천 3, 4가에 있던 다리 광교와 장교 사이에 있다고 하여 '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00년대 초반은 농수산물 위주로 판매했으나, 현재는 의류나 구제, 직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우리나라 대표 종합시장이 됐다.

광장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단연코 먹거리장터다. 다양한 음식들이 넘쳐나는 이곳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수많은 인파로 북적인다. 그중 가장 유명한 메뉴는 역시 육회와 빈대떡이다. 먹거리장터에 진입하자마자 육회와 빈대떡 가게들이 모여 있고, 고소한 빈대떡 냄새가 진동하여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 갓 부친 따끈한 빈대떡과 노른자를 터뜨린 신선한 육회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이다. 함께 파는 마약

김밥도 별미인데, 단무지와 당근박에 들어가지 않는 작은 꼬마김밥이지만 계속 들어가는, 중독성 있는 맛이다.

시장하면 분식도 빠질 수 없다. 평소에 접하는 프랜차이즈 떡볶이와 달리 두툼하게 썰어진 쌀떡과 눈앞에서 커다란 크기로 썰어주는 순대의 조합은 찹떡궁합이다. 정이 가득한 '시장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광장시장은 일반적인 전통시장과 다르게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메뉴들과 시장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 젊은 층의 빈티지 감성을 자극한 카페들을 통해 신·구세대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광장시장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관광 명소도 많다. 종로에 놀러 온 이들에게 한 번쯤 들르길 권한다.

페이커는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첫 번째 MSI 대회에서 우승 타이틀을 놓쳤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연달아 우승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전 세계 LOL 팬들에게 입증했다. 이후 6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그렇기에 2023 MSI는 그와 그의 팀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페이커는 "MSI 우승을 못한 지 정말 오래됐다. 작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우승에 대한 생각이 더 강

이달의 스포츠

LOL(롤) 2023 MSI, 여차피 우승은 한국?

라이엇게임즈가 주관하는 롤 국제 대회 MSI(Mid-Season Invitational)가 지난 5월 2일 영국 코퍼 박스 아레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MSI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된 2020년을 제외하고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했다. 작년까지 지역별 우승 리그 팀만 참가 자격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 메이저 리그로 꼽히는 LCK(한국), LPL(중국), LEC(유럽, 중동, 아프리카), LCS(북미) 등 4개 지역에선 각

각 2개의 팀이 출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번 대회에 총 13개의 팀의 80여 명이 출전했는데 이중 한국인 선수만 25명에 달해 e-스포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을 보여줬다. 특히 본선 브레이크 스테이지에 미리 진출한 Gen.G Esports(이하 젠지), SK텔레콤 T1(이하 티원) 등 5개 팀에는 모두 한국인 선수가 포진해 있었다. 중국 프로 리그에서 활동을 이어온 LPL 징통 게이밍(이하 JDG)

의 카나비(서진혁)는 JDG의 여러 우승을 견인하며 이번 MSI 첫 우승을 조준하고 있다. 올해 같은 팀에 합류한 롤러(박재혁) 역시 작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우승하며 놀라운 폼을 보여줬다. 과연 JDG는 올해 MSI 우승컵을 쟁길 수 있을지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다. 한편 여러 한국 선수들 가운데 단연 한 선수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바로 티원 소속 페이커(이상혁)다.

절해졌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번 경험으로 체득하고 배운 점들을 활용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MSI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팬분들께 보여드리려면 큰 재미와 기쁨을 드릴 것 같아 더 기대된다"고 참가 각오를 전했다. 이에 부응하듯 페이커는 브레이크 스테이지 1라운드 매드 라이온스(MAD)를 상대로 엄청난 게임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LOL 프로 선수 중 최초로 국제 대회 통산 이백

번재 출전을 달성했다. 또한 MSI 통산 경기 수 83경기(세트 기준)로 '샤오후' 리위안차오(웨이보 게이밍)와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세 경기를 더 치르며 86경기로 단독 1위에 올랐다. 이어 페이커와 티원은 MAD를 잡아 2R에 진출하며 우승을 예고했다. 같은 LCK의 강호 젠지 역시 올해 LCK 스프링 우승의 기세에 힘입어 2023 MSI의 우승을 노린다. 창단 첫 선수 중 최초로 국제 대회 통산 이백

도 나가봤던 대회를 오랜만에 다시 나가게 되었고,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고동빈 감독 역시 "선수 시절 너무나 가보고 싶은 대회였는데 감독으로 참가하게 되어 선수단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과연 올해 2023 MSI의 우승 타이틀은 어느 팀이 거머쥘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정현 수습기자 (tony0435@naver.com)